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2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손으로 떼어 먹는 ‘스낵파인애플’ 새 소득작목 될까-6면	과수연구과	제주매일
○	‘스낵파인애플’ 제주 소득작목 육성-3면	과수연구과	한라일보
○	녹두 파종 작업시간 부담 줄인다-3면	동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대한민국 첫 ‘올리브오일’ 제주서 짰다-3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한국생활개선회 노형지부-7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한국생활개선회 한경면회-7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생활개선제주시한경면회, 물품 기탁-12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한림농협, 달코미 양배추 재배기술 교육-7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농업농촌소식-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1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잇단 지게차 사망사고…실태 점검-3면	-	제민일보
○	고당도 ‘제황감귤’ 농가소득 향상 기대-6면	-	제민일보
○	토평 산지유통센터, 전국 경영평가 1위-9면	-	제주매일
○	드론 전문 청년농업인 육성-10면	-	제주매일
○	제주 농촌 정착 돕는 통합 창구 문 열었다-6면	-	한라일보

(제주매일: 2026년 11월 2일)

○ 손으로 떼어 먹는 '스낵파인애플' 새 소득작목 될까-6면

손으로 떼어 먹는 '스낵파인애플' 새 소득작목 될까

도 농업기술원, 농가 예상 소득·소비자 평가 높아
재배기술 개발…실증재배 후 2028년 보급 목표

손으로 떼어 먹는 아열대과수 '스낵파인애플'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키우기 위한 재배기술 개발이 시작된다.

1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낵파인애플을 시범 재배한 결과 일반 파인애플보다 소득이 23% 높고 소비자 만족도도 8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아열대과수 농가는 232곳이며 재배면적은 87ha에 이른다. 이는 전국 재배면적의 38.3%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재배면적의 74.5%에 달하는 64.8ha가 망고에 집중돼 재배 작목의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스낵파인애플을 들여와 재배 적응성을 살펴보고 있다.

스낵파인애플은 과육을 손으로 쉽게 떼어 먹을 수 있는 데다 가운데 심까지 먹을 수 있어 일반 파인애플과 다른 상품성을 갖췄다.

재배 결과 과실 평균 무게는 837.5g, 당도는 14.6브릭스였다. 10a(1000㎡)당 예상 소득은 약 1514만원으로 국내산 일반 파인애플(1226만원)보다 23% 높았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9월 2회에 걸쳐 평가회를 열고 도내외 소비자 51명을 대상으로 외관·과실 품질·상품성 등 16개 항목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종합 만족도는 86점으로 △과피색과 과육색 △먹기 편한 정도 △관광상품 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업기술원은 내년부터 재배기술 확립과 보급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과실 크기와 당도를 높이는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식물의 새순을 활용해 재배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연구한다. 농가에서 사용할 재배 지침서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농가 2곳에서 실증재배를 거친 뒤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보급할 수 있도록 묘 생산·공급 체계를 [illegible]이다.

11. 2.
제주매일 6
[illegible]

(한라일보: 2026년 11월 2일)

○ '스낵파인애플' 제주 소득작목 육성-3면

'스낵파인애플' 제주 소득작목 육성

오키나와 특산품… 작년 제주 들여와 재배 적응성 등 분석
예상소득 일반 파인애플보다 23% 높아… 2028년 보급 목표

제주지역에서 일본 오키나와의 대표 특산품으로 알려진 '스낵파인애플'이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스낵파인애플의 농가 보급 목표를 2028년으로 설정하고 재배기술 확립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낵파인애플을 들여와 시범 재배한 결과, 일반 파인애플보다 소득이 23% 높고 소비자 만족도는 86점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아열대과수 재배면적은 87ha(232농가)로 전국의 38.3%를 차지하는 전국 1위다.

재배면적은 2010년 41ha에서 2018년 56.6ha, 2022년 58.4ha, 올해 87ha로 늘었지만, 74.5%(64.8ha)가 망고에 몰려 있어 재배 작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와 소비 흐름 변화에 대응해 지난해 스낵파인애플(품종 '대농4호')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 적응성을 분석하고 있다.



스낵파인애플. 제주도농기원 제공

스낵파인애플은 과육을 손으로 쉽게 떼어 먹을 수 있고, 가운데 심까지 먹을 수 있어 일반 파인애플과 다른 상품성을 갖췄다. 일본 오키나와의 대표 특산품으로 한국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다.

재배 결과 과실 평균 무게는 837.5g, 당도는 14.6브릭스였으며, 10a(1000㎡)당 예상 소득은 약 1514만 원으로 국내산 일반 파인애플(1226만 원)보다 23% 높았다.

농업기술원은 9월 두 차례 평가회를 열어 도내외 소비자 51명을 대상으로 수입산 파인애플과 비교해 외관, 과실 품질, 상품성 등 16개 항목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종합 만족도는 86점이었으며, 특히 과피색과 과육색, 먹기 편한 정도, 관광상품 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업기술원은 2027년부터 재배기술 확립과 보급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도내 농가 2곳에서 실증재배로 재배 안정성을 검증하고,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보급할 수 있도록 묘 생산·공급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보급 기반을 갖춰 아열대과수 재배구조를 다양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1. 2.
이태윤기자 lty9456@[illegible] 한라일보 3

(한라일보: 2026년 11월 2일)

○ 녹두 파종 작업시간 부담 줄인다-3면

녹두 파종 작업시간 부담 줄인다

복합파종기·자동조향장치 활용 정밀 파종 기술 적용
작업시간 64%, 투입노동량 88% 감소 등 부담 덜어

녹두 파종 작업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녹두 파종에 복합파종기와 자동조향장치를 활용한 결과 투입노동량이 88% 줄어, 정밀 기계파종이 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녹두 재배농가 1곳에 장비를 보급하고, 기존 작업 방식과 정밀 기계파종 방식의 작업 효율을 비교·분석했다. 시범농가에서 두 방식을 비교한 결과, 밭 갈기부터 제초제 살포까지 걸리는 시간은 10a당 1.1시간에서 0.4시간으로 64% 줄었다.

작업인원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어 작업시간과 인원을 함께 반영한 투입노동량은 88% 감소했고, 같은 시간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2.8배 늘었다.

시범농가는 기존에는 곧게 가는지와 작업 간격을 확인하려고 앞뒤를 계속 살피며 방향을 맞춰야 했지만, 자동조향장치 도입 뒤 운전 피로가 크게 줄었다고 답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의 기계 활용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녹두 기계화 재배기술을 보완할 계획이다.

11. 2.
한라일보 3

(삼다일보: 2026년 11월 2일)

○ 대한민국 첫 ‘올리브오일’ 제주서 짰다-3면

대한민국 첫 ‘올리브오일’ 제주서 짰다

제주올리브연구회·제주올리브스탠다드, 출시 기념 착유식 열어

“바다 건너오지 않은 대한민국서 첫 시판되는 것에 의미 가져”

제주에서 재배한 올리브로 짠 올리브오일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판된다. 제주올리브연구회와 제주올리브스탠다드(대표 이정석)는 1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제주올리브스탠다드에서 ‘대한민국 첫 올리브오일 출시 기념 착유식’을 열었다.

제주 올리브의 역사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가 올리브 품종을 처음 들여와 시험재배를 시작했고, 이듬해인 2010년 정이열 제주올리브연구회 고문이 조천읍에 제주 첫 올리브 전문농장을 열었다. 이후 제주올리브연구회가 출범했다.

이정석 제주올리브연구회장은 이날 경과보고에서 “2025년 11월 올리브연구회 회원이 100명을 넘었고, 1년도 안 된 2026년 10월에 200명을 돌파했다”며 “현재 제주에는 회원 농가 기준 약 76ha에 올리브나무 3만3000그루가 심어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그 나무에서 딴 열매가 바로 이곳 방앗간에서 처음 기름이 됐다”며 “바다를 건너오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판되는 올리브오일”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정이열 고문은 축사에서 “2009년 온난화연구소가 들여온 코로네이키 품종이 2015년 처음 열매를 맺었고, 저는 2016년 코라티나 품종으로 수확을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라며 “제주가 올리브를 키우기에 결코 척박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10년 후에는 올리브 풍광이 제주의 또 다른 모습으로 떠오르는 날을 상상해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 문정훈 서울대 교수, 안순화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떡케이크 커팅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방앗간 착유 시연과 햇올리브오일 시음 등을 함께했다.

한편, 올리브는 제주에서 노지 재배가 가능한 유일한 아열대 작목이다. 제주올리브연구회는 ‘제주올리브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올리브 생산 공동체를 구축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1일 서귀포시 대정읍 ‘올리브스탠다드’에서 대한민국 첫 올리브오일 착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samdailbo.com

(제주일보: 2026년 11월 2일)

○ 한국생활개선회 노형지부-7면



한국생활개선회 노형지부

취약계층 위한 고추장 기탁

한국생활개선회 제주시연합회 노형지부(회장 안순영)는 지난달 27일 회원들이 직접 만든 고추장 50통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제주시 노형동(동장 김형준)에 기탁했다

11. 2.
제주일보 7

(제주일보: 2026년 11월 2일)

○ 한국생활개선회 한경면회-7면



한국생활개선회 한경면회

소외계층 위한 고추장 기탁

한국생활개선 제주시한경면회(회장 추말례)는 지난달 27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고추장 30통을 제주시 한경면(면장 양수호)에 기탁했다.

11. 2.
제주일보 7

(제주매일: 2026년 11월 2일)

○ 생활개선제주시한경면회, 물품 기탁-12면



생활개선제주시한경면회, 물품 기탁

한국생활개선 제주시한경면회(면회장 추말례)는 지난달 27일 한경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통고추장 30병을 기탁했다.

11. 2.
제주매일 12

(제주일보: 2026년 11월 2일)

○ 한림농협, 달코미 양배추 재배기술 교육-7면

한림농협, 달코미 양배추 재배기술 교육



한림농협(조합장 차성준)은 지난달 28일 농협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달코미 양배추 사업회의 및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서부농업기술센터 **김유근 농촌지도사**가 강사로 나서 고품질 양배추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과 생육관리 방법을 공유했

11. 2.
제주일보 7

(제주일보: 2026년 11월 2일)

○ 농업농촌소식-9면

■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노지감귤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중

- 출하 시 품질기준(당도 8.5°Bx 이상) 준수

△수확 7~15일 전까지 부패방지제 살포(농약별 안전사용기준 준수)

※ 비가 내릴 경우 3일 이상 건조 후 수확하며, 수확 후 3일 정도 예조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11. 2.
제주일보 9

(제민일보: 2026년 11월 2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13면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 1000원
- 무료입장: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 문의
-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732-5380)

11. 2
제민일보 13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기간 :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 장소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참가인원 : 6.5만명 내외
- 행사성격 :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비즈니스 :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제민일보: 2026년 11월 2일)

○ 잇단 지게차 사망사고…실태 점검-3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31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 작업 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 제공

잇단 지게차 사망사고…실태 점검

위성곤 지사 산지유통센터서 2인1조 편성·안전관리자 배치

최근 제주에서 잇따른 지게차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가 현장을 방문, 실태 점검에 나섰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 작업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게차를 비롯한 작업 공정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위 지사는 이날 농협 관계자들에게 지게차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작업자를 2인 1조로 편성해 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 지사는 "안전관리자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작업자들의 동선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에서 이를 점검할 눈이 필요하다"며 "그 눈이 없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한 만큼 지게차뿐 아니라 작업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가 적절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잇단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도내에서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도청 안전건강실장실에서 관계부서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지게차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게차 운전 자격 관리와 작업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안내와 홍보, 특별교육, 현장방문 계도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두영 기자

11. 2.
제민일보 3

(제민일보: 2026년 11월 2일)

○ 고당도 ‘제황감귤’ 농가소득 향상 기대-6면

고당도 ‘제황감귤’ 농가소득 향상 기대

가락시장 3kg 5만원 상회

중문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범)의 신규 프리미엄 감귤 브랜드 ‘제황감귤’이 높은 가격을 형성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황감귤’은 당도 15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감귤만을 엄선한 중문농협의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로 철저한 당도 선별과 품질관리를 통해 균일한 상품성을 확보하고 제주감귤의 고급화와 농가 수취가격 향상을 위해 개발됐다.

지난 28일 새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청과에서 진행된 첫 경매에서 3kg 기준 최고 5만8000원과 5만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서울청과 첫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기록하며 고당도 감귤의 시장 경쟁력과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문농협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노지감귤 공선출하회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소비지 현장 견학을 추진했다. 이번 견학에서는 서울청과 경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감귤의 경매 과정과 소비지 유통환경을 살펴보고 품질에 따른 시장 평가와 고품질 감귤 생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이번 견학을 계기로 생산농가와 소비지 시장 간의 이해를 높이고 산지에서부터 당도와 품질 중심의 선별·출하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서울청과를 비롯한 주요 도매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제황감귤’을 제주를 대표하는 고품질 감귤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범 조합장은 “제황감귤의 첫 경매 성과는 고품질 감귤 생산과 철저한 선별이 농가 수취가격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지 유통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제주감귤을 생산해 농가소득 증대와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법수 기자

11. 2.
제민일보 6

(제주매일: 2026년 11월 2일)

○ 토평 산지유통센터, 전국 경영평가 1위-9면

토평 산지유통센터, 전국 경영평가 1위

색달·남원·하례도 10위권…국비 1억1천만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과수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종합 경영평가'에서 서귀포농협 토평 센터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도내 4곳이 10위권에 들었다.

이번 평가로 확보한 국비 추가 지원사업비는 총 1억1000만원이다. 센터별 순위와 지원액은 △서귀포농협 토평 1위·5000만원 △중문농협 색달 6위·3000만원 △제주남원농협 남원 8위·2000만원 △제주위미농협 하례 10위·1000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실 생산과 유통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지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과수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11. 2.
제주매일 9

지난달 30일 도에 따르면 전국 1위를 차



지한 서귀포농협 토평 센터는 지난해 감귤 1만754t, 409억원 규모의 유통 실적을 올렸다. 전속출하조직 취급액 298억원을 기록하는 등 농가 출하조직을 확대하고 정가·수의거래와 온라인 판매 등으로 유통경로를 넓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토평 센터는 이번 평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도 받는다.

박경철 기자

(제주매일: 2026년 11월 2일)

○ 드론 전문 청년농업인 육성-10면



드론 전문 청년농업인 육성 제주대, 내년부터 현장 교육

제주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양성교육사업단(단장 김동순 교수)은 스마트 드론 교육실습장과 항공방제·해충예찰 드론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사업단은 지난해 실습장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항공방제드론과 해충예찰 드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드론 조종은 물론 농작물 방제와 병해충 예찰, 농업정보 수집·분석 교육이 가능해졌다.

사업단은 2027년부터 3년간 제주도와 협력해 청년농업인의 드론 자격 취득과 전문기술 교육을 추진한다. 김진규 기자

11. 2
제주매일 10

(한라일보: 2026년 11월 2일)

○ 제주 농촌 정착 돕는 통합 창구 문 열었다-6면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제주도 제공

제주 농촌 정착 돕는 통합 창구 문 열었다

표선면에 종합지원센터 개소… 귀농귀촌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제주지역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 이후 사후관리까지 한곳에서 돕는 종합 지원 창구가 지난달 31일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귀농귀촌 희망자부터 정착주민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고 상담하며, 단계별 교육과 농업 기술지도, 실습농장 운영,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으로 농촌 적응을 돕는다.

정착한 뒤에는 마을 융화사업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줄여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귀농귀촌 관련 조사와 홍보, 정책 발굴도 함께 맡는다.

위성곤 지사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빨라지며 제주 농업·농촌의 기반을 지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귀농귀촌인 여러분은 지역사회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고, 한 번에 처리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행정 비용과 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문을 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11. 2. 한라일보 6